

4_1_한국어_唐臼山古墳

가라우스산 고분

가라우스산 고분은, 지금부터 약 1400 년 전(7 세기 전반)에 만들어졌습니다.

현재는 봉토가 무너져서 돌이 보입니다. 원래는, 판석을 짜 맞추어서, 시신을 안치하는 방을 만들었습니다.

조사가 안 돼서,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, 바닥에는 작은 돌을 깔았던 것 같습니다.

또, 토기도 조금 발견되었습니다.

7 세기 전반에, 수나라에 파견된 사신으로 활약한 오노 노 이모코의 무덤이 아닌가, 라고도 합니다만,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.